

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영미학과	이름	임xx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Langara College	파견기간	2020.2.24~2020.6.28
귀국여부	귀국함		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 근처에 스카이트레인 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음. 학교 크기는 순천향대보다 작지만 아담하니 괜찮았고, 전반적으로 깔끔함. 학교 내에 팀 홀튼(캐나다의 스타벅스라고 함), 스타벅스 그리고 서브웨이가 있음. 음료, 간식 자판기, ATM, 식수대 있음. 학교 밖 근처에는 뭐가 딱히 없지만 스카이트레인트면 20분 이내로 금방 시내로 갈 수 있음.</p>
2019-1학기 수업	<p>시험(읽기, 듣기, 말하기, 쓰기)을 보고 실력대로 반이 배정됨. 본인 때는 쓰기 시험 질문이 대가족이 좋은지 아닌지,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쓰는 거였음. 반이 배정되고 하루이틀 수업 들으면서 또 시험을 봐서 배정된 반이 수준에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, 선생님의 평가 하에 반이 옮겨질 수 있음(대부분 바뀌지 않음) 한학기에 leap수업을 2개 들음. 본인은 leap2, 3 들음(첫번째 수업 성적이 B이상이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똑같은 레벨을 들어야 함. 우리학교 학생이면 다 통과할 거임)</p> <p>수업시간은 하루에 4시간. 한반에 두명의 전담 선생님이 계셔서 2시간씩 수업을 맡으심. 중간에 20분 쉬는 시간 있음(마이썬 같은 거 나눠주면서 말 걸기 좋음) 한학기 동안 만난 4명의 선생님들 모두 좋으셨음. 질문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 해주심.</p> <p><leap2 수업></p> <p>1,2주에 한번씩 중간중간 읽기, 말하기, 쓰기, 듣기 시험을 수행평가식으로 보고 중간, 기말고사처럼 2번의 팀 발표(약 4분짜리) 있음. 이걸로 총 합계를 내서 성적이 나옴. 현재완료, be+ing 용법과 같은 문법을 배우는데 한국에서 이미 배운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헛갈릴 수 있는 다양한 예문을 통해 배움으로써 기초를 단단히</p>

	<p>다지게 되었음. 이 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영어로 글을 쓸 때 콤마(,)를 써야하는, 그리고 쓰지 말아야하는 위치에 대해서 배운 것임.</p> <p><leap3수업></p> <p>leap2 수업이 끝나고 leap3수업을 듣기 전에 2주간 방학이 있었음(이 때 여행 추천) 말하기 시험이 없어지고 읽기, 쓰기, 듣기만 시험 봄. 역시 팀 발표 2개 있음(약 6분) leap3부터는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배움. 개인적으로는 leap2가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음. Leap2,3 모두 글을 써서 제출하면(숙제 또는 시험) 피드백을 주셔서 어디가 왜 틀렸는지,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음.</p>
<p>프로그램 운영</p>	<p><i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</i></p> <p>예)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p> <p>학교 오리엔테이션과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 각각 있음. 학교 leap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서 팔로우를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신청 모집 공고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. i-eat(주말에 담당 직원과 신청한 학생들이 만나 다양한 나라 음식을 먹으러 가는 프로그램)을 신청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취소됨. 가기로 했던 곳은 브라질 레스토랑이었고, 신청할 때 현금 지불해야함.</p> <p>leap 수업과는 별개로 말하기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음(수업시간에 담당 직원이 와서 홍보하고 신청 받아 감. 무료임)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<p>날씨</p>	<p><i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i></p> <p>롱패딩 거의 안 입음(밖은 추운데 스카인트레인 안이나 학교 안은 따뜻함, 부피 커서 스카인트레인 없을 때 불편함. 숏패딩이나 다른 거 추천)</p> <p>2월말~3월까지 히트택+긴팔+털달린 두꺼운 후드집업 입고 다녔음.</p> <p>4월초까지 밤에 추움. 전기장판 살 정도는 아닌데 2겹씩 입고 잠. 수면 양말 필수. 3월달에 비 자주 오지만 한국 장마 때처럼 많이 오진 않음. 비 오다가 갑자기 개고 그럼. 미니 우산 항상 챙겼음. 4월달부터 화창한 날씨 많아짐. 두꺼운 자켓+긴 옷 또는 기모 들어간 맨투맨 입고 다님. 반팔은 6월 중순부터 가능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겹옷 필수임.</p>

<p>안전</p>	<p><i>현지 안전 상황</i></p> <p>매우 안전함. 밤에 주택가는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 들어와야 함. 6월 달에는 신기하게도 오후 10시부터 캄캄해져서 밖에서 놀다가 10시에 딱 맞춰 집에 들어가고 그랬음.</p>
<p>숙소</p>	<p><i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O) 외부 숙소() 기타()</i> <i>기숙사 이름,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i></p> <p>홈스테이 운이 좋았음. 은퇴한 노부부 션는데 가족같이 대해 주심. 홍콩 출신이시고 영어 잘하심. 다 커서 결혼한 아들과 딸이 근처에 살아서 자주 놀러 옴. 같이 저녁 먹으면서 말 많이 걸어 주심. 딸은 애기가 두 명 있어서 거의 매일 와서 엄마와 공동 육아함. 아들과 딸이 단톡방 만들어서 식당 추천 해주시고 코스트코도 데려가 주심.</p> <p>옷걸이, 와이파이, 드라이기, 화장실 휴지, 전자레인지, 커피포트 다 있었음.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씩 이었고 수요일마다 빨래 세탁기 앞에 갖다 놓으면 흠뻑이 빨래 해주심(모든 홈스테이가 그렇진 않을 듯). 집안일은 본인이 먹은 그릇 설거지와 본인 방 청소기 돌리기 정도였음. 일본인 학생(17살)도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일본 돌아감.</p> <p>집근처에 문화센터 수영장 있었는데 노부부가 같이 아쿠아핏 다니고 싶으면 같이 다녀도 된다고 해서(캐나다 가기 전 이메일로 연락) 10티켓 구입(5만원대, 노부부는 한달패스 끊었지만 본인은 학교 다녀야 해서 토요일만 감) 집 근처에 문화센터 없어도 랑가라학교 옆에 수영장이랑 헬스장 있음. 랑가라 수영장에도 아쿠아핏, 수영 수업 있으니 관심 있으면 수영복 챙겨오길.</p>
<p>식사</p>	<p><i>학교 Meal Plan () 학교식당 개별이용 () 홈스테이 (O)</i> <i>외부식당 () 직접 요리 () 기타 ()</i> <i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i></p> <p>점심엔 샌드위치(햄 또는 참치캔+치즈+양상추)랑 오렌지, 음료수. 저녁엔 밥이랑 반찬들 또는 국수 종류(감사하게도 전날 먹은 거 점심으로 안 싸줬음)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먹는데 거기에 전자레인지 있어서 이용가능. 홈스테이집에 전자레인지, 커피포트 있었음. 요리가능했음. 캐나다 가기 전에 홈스테이 지정 받고 메일로 연락 가능하니까 미리 궁금한 거 질문 가능. 본인이 요리해서 먹고 싶으면 미리 점심</p>

	<p>준비해주실필요 없다고 말하고 알아서 먹으면 됨. *팁-처음엔 음식 양이 적거나 입에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한국음식 많이 사 놓지 않기를. 언제든지 살 수 있기때문에.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처음에 조금 힘들었는데 맛있게 먹게 되었음. 위도 작아짐. 뜨거운 물에 넣으면 국이 되는 국 블록을 한국에서 사감. 저녁으로 밥이 나왔는데 반찬이 부실하거나 향신료 강해서 못 먹는 음식 있으면 국이랑 같이 밥 먹었음.</p>
교통	<p><i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i> 교통수단-스카이트레인(한국의 전철). 등교 시간 편도로 1시간 걸렸지만 체감상 오래 느껴지지 않았음. 집 근처에 스카이트레인 역 있어서 그거 타고 한번 환승하면 학교 근처 역에 도착해서 가기 쉬웠음. 2월달은 그때그때 하루치 카드 충전해서 썼고 3월부터 맨슬리 패스 카드 구입. 집 근처에 역 있어서 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음. 스카인 트레인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시내였음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약5,500,000 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774000원	에어캐나다, 왕복 가격
Fees	<p><i>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,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.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.</i> 예) University Support Fee, \$3,000</p>	
보험료	233,000원	삼성글로벌케어
숙소	\$3,654	2월달6일치+3,4,5,6월달(한달에 \$870)
식비		
교통비		
책값	\$41.08	교재+학교 준비물
기타1		
기타2		
합계	약5,500,000원	코로나로 인해 3월 중순~5월

		말까지 외출 거의 안해서 보편적인 경비 산출 불가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*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(분량 자유)*

산책, 피크닉 하기 좋은 예쁜 공원이 참 많음. 캐나다 도착 후 큰 돛자리를 오프라인에서 구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 구함. 사려면 온라인에서 구매하시길. 4월부터 햇살이 강해서 선글라스 강추. 6월달이 되어도 일교차가 커서 딱 반팔만 하루 종일 입을 수 있는 날은 몇 안됨. 여름옷과 입을 수 있는 겉옷 꼭 챙기시고 겨울, 가을 옷을 더 많이, 여름옷을 적게 챙기면 됨. 걸어 다닐 일이 많아서 구두 거의 못 신음.

술은 Liquor store에서만 구입가능하고 신분증 2개필요. 한국 신분증과 여권으로 가능했음. 밖에서 음주 금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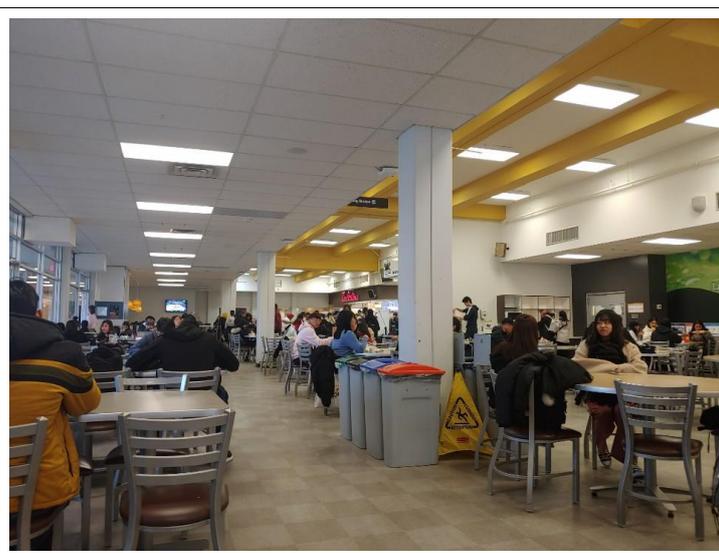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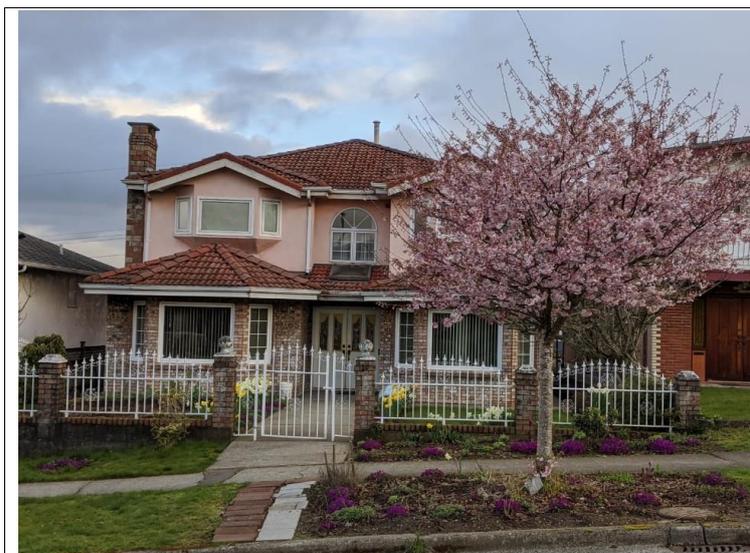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*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(분량 자유)*

함께 수업 듣는 학생들이 다 본인 또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대가 다양함. 본인처럼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부터 해서 결혼하고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 분들 까지 있었음. 교환학생보다는 이민을 와서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더 많았음. 인종도 일본, 중국, 대만, 카자흐스탄, 이란, 베트남으로 다양 했음. 다들 착하고 수업시간에 돌아가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친해지기 쉬움.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으로 바뀌어서 함께 주말에 만나 못 놀러간 게 아쉬움.

한국에서 필수교양영어, s-flec과 같은 영어수업을 많이 받아봤지만 크게 영어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 수업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음. 하지만 랑가라 수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한국에서 받았던 영어수업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홈스테이 집과 방

학교 카페테리아와 점심 샌드위치



주말 점심

보통의 저녁 메뉴/가끔 먹는 특식



그랜빌아일랜드/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타기

빅토리아 1박2일여행/노스밴쿠버에서 카약타기